

KIA, 뒷심 부족 역전패... 롯데에 1경기차 추격 당해



대구-문학-잠실 원정 강행군·더블헤더에 피로 누적
1회 선취점·4회 김민식 쓰리런 7회까지 4-2 리드
불펜 난조 속 연장 10회 4-7... 3연승 롯데, 6위 올라서

수비와 주루에서 희비가 엇갈린 잠실 마지막 경기였다.

KIA 타이거즈가 7일 잠실 구장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와의 2018시즌 마지막 대결에서 연장 10회 승부 끝에 4-7 재역전패를 당했다. KIA의 가장 강력한 5위 라이벌인 롯데 자이언츠는 3연승 질주하며 1경기차 6위가 됐다.

선취점과 역전 스리런은 KIA가 챙겼지만, 승리는 박건우의 끝내기 홈런을 앞세운 두산의 몫이었다.

KIA는 이날 베나디나-나지완-최형우-안지홍-김주찬-유민상-이범호-김민식-김선빈으로 라인업

을 구성했다. 김주찬을 지명 타자로 해 나지완을 유익수, 유민상을 1루수로 배치해 '화력'에 초점을 맞췄다.

1회초 베나디나가 우중간으로 공을 보낸 뒤 2루까지 달렸다. 나지완의 우전안타가 나오면서 KIA가 경기 시작과 함께 선취점을 만들었다.

하지만 최형우가 유격수 플라이로 물러난 뒤 안지홍의 타구가 두산 선발 이영하 앞으로 향하면서 투수-2루수-1루수로 이어지는 병살타가 기록됐다. KIA 선발로 출격한 좌완 투기 김우신이 1.2회를 잘 넘긴 뒤 3회를 불넷으로 시작했다.

김우신은 허경민의 좌익수 플라이를 끝으로 이날

임무를 끝내고 좌완 필승조 임기준에게 마운드를 넘겼다.

임기준이 최주환을 1루수 파울 플라이로 처리한 뒤 박건우의 타석 때 1루 견제를 하면서 스타트를 끊은 주자 정수빈을 잡아내는 것 같았다. 하지만 공을 잡은 2루수 안지홍의 태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2사 2루, 박건우의 중전안타로 1-1 동점이 됐다. 이어 임기준은 김재환을 뚝에 맞는 볼로 내보낸 뒤 양의지의 좌전안타로 1-2 역전을 허용했다.

4회초 승부를 뒤집는 '천적'의 한방이 터졌다.

김주찬의 불넷으로 만들어진 1사 1루에서 유민상이 헛스윙 삼진을 당했지만 이범호가 좌전안타로 기회를 살렸다. 이어 올 시즌 두산에 3개의 홈런 포함 13안타(타율 0.382)를 때려냈던 김민식이 이영하의 144km 직구를 우측 담장 밖으로 넘기면서 4-2 역전극을 연출했다.

하지만 대구-문학-잠실로 이어지는 원정 강행군 속 전날 더블헤더까지 치렀던 KIA 선수들의 움직임이 없었다.

6회 투입된 필승조 김운동도 실점을 했다. 선두타자 김재호에게 좌측 2루타를 내준 김운동이 삼진과 중견수 플라이로 투 아웃까지 잡았지만, 허경민에게 중전안타를 맞으며 1점 차가 됐다.

7회를 잘 막아낸 팻딘도 8회 출발이 좋지 못했다. 두산 선두타자 오재원이 좌중간으로 공을 보낸 뒤 전력으로 2루까지 향하며 KIA 수비를 흔들었다. 정수빈의 우전 안타에 이어 허경민의 희생플라이가 나오면서 승부는 4-4 원점으로 돌아갔다.

KIA는 9회 이범호의 안타와 상대 2루수 오재원의 실책으로 1사 1.2루 기회를 잡았지만 베나디나가 유익수 플라이로 아웃됐고, 대타 정성훈은 풀카운트 승부 끝에 헛스윙 삼진을 당했다.

윤석민이 9회 등판해 승부를 연장까지 끌고 갔지만 타선의 무게는 두산에 쏠렸다.

공격형 라인업을 구축했던 KIA가 7회말 수비 강화를 위해 최형우와 나지완을 동시에 뺐고, 9회에는

3안타에 성공한 이범호 대신 대주자 유재신을 투입했다.

반면 두산은 9회말 불넷으로 나간 오재일의 자리에 류지혁을 넣은 것을 제외하고는 스타팅 멤버인 허경민, 최주환, 박건우, 김재환, 양의지, 김재호, 오재원, 정수빈 그대로 연장 승부에 돌입했다.

10회초 최형우 대수비로 들어갔던 박준태가 좌익수 플라이로 물러난 뒤 있던 사구 여파로 페이스가 떨어진 안지홍이 5번째 타석에서도 안타를 신고하지 못하면서 순식간에 투 아웃이 됐다. 김주찬의 불넷에 이어 최원준의 중전안타까지 이어졌지만 유재신의 헛스윙 삼진으로 10회초가 끝났다.

그리고 마무리 윤석민이 10회말 1사에서 허경민에게 인성 2루타를 내준 뒤 최주환을 고의사구로 내보내며 1사 1.2루. 이어 1볼 스트라이크에서 박건우에게 던진 체인업이 그대로 좌측 담장을 넘어가면서 KIA의 패가 기록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7일 인천 잭니클라우스CC에서 열린 2018 UL 인터내셔널 크라운 마지막 라운드 경기. 경기에서 우수한 한국 선수들이 시상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성현, 김인경, 전인지, 유소연. /연합뉴스

여자 골프, 세계 최강 입증

국가대항전 UL 인터내셔널 크라운 인방서 첫 우승

한국이 여자골프 국가대항전인 UL 인터내셔널 크라운(총상금 160만 달러)에서 첫 우승을 달성했다.

김인경, 유소연, 박성현, 전인지로 팀을 구성한 우리나라는 7일 인천 잭니클라우스 골프클럽 코리아(파72)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싱글매치플레이 경기에서 2승 1무 1패를 기록해 승점 15로 우승했다.

2014년 창설된 이 대회에서 우리나라는 1회 대회 3위, 2016년 2회 대회 준우승을 차지했고, 처음 한국에서 열린 올해 대회에서 세계 최강의 자존심을 지켰다.

우승 상금은 선수당 10만 달러씩 총 40만 달러(약 4억5000만원)다. 이번 대회 2위 자리는 승점

11씩 기록한 미국과 잉글랜드가 나뉘어 가졌다. 우리나라는 이날 오전에 진행된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잉글랜드를 상대로 2승을 따내 승점 10을 안고 싱글 매치플레이에 진출했다.

8개 나라가 출전한 이번 대회는 각 조 상위 2개 나라와 조 3위 국가 간 플레이오프에서 이긴 나라까지 5개국이 결선인 싱글 매치플레이를 벌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별리그와 싱글 매치플레이에서 얻은 승점의 합으로 순위를 정하기 때문에 조별리그에서 10점으로 가장 많은 승점을 따낸 한국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조별리그에서는 미국이 8점, 잉글랜드 7점, 스웨덴 6점, 태국 5점을 기록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싱글 매치플레이에서 고전했다.

특히 세계 랭킹 1위 박성현과 2위 에리아 쭈타누간(태국)의 맞대결에서 박성현이 2홀 차로 패했다. 특히 잉글랜드가 싱글 매치플레이 4경기 가운데 한때 3승 1무까지 기록한 반면 우리나라는 전인지만 리드를 잡았을 뿐 다른 선수들이 모두 끌려가며 선두 자리가 흔들렸다.

하지만 전인지가 안나 노르드크비스트(스웨덴)에 1홀 차로 승리를 따내 한숨을 돌렸고, 김인경이 잉글랜드 선수와 맞대결을 1홀 차로 승리로 장식하며 승부에 쐬기를 박았다.

잉글랜드는 최종 순위에서 미국과 함께 공동 2위에 올라 내내 한국을 압박했다.

그러나 김인경이 잉글랜드 브룬데 로와 매치업에서 값진 승리를 따냈다. 김인경은 1홀 차로 끌려가던 12번부터 14번 홀까지 연달아 승리하며 승부를 뒤집어 우승의 일등공신이 됐다.

마지막 경기로 열린 유소연과 렉시 토폰슨(미국)의 대결에서는 유소연이 16번 홀을 따내 올 스퀘어를 만든 뒤 남은 2개 홀을 잘 버텨 무승부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김예림, 김연아가 보인다

13년만에 ISU 주니어 그랑프리 파이널 진출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기대주 김예림(도장중)이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주니어 그랑프리 파이널 진출에 성공했다.

김예림은 7일 막을 내린 주니어 그랑프리 6차 대회 결과 아나스타샤 타라카노바, 안나 타루시나(이상 러시아), 이해인(한강중)이 1-3위를 기록하면서 남은 7차 대회 결과와 상관없이 주니어 그랑프리 파이널 진출을 확정했다.

한국 선수가 파이널에 나서는 건 2005년 '피겨퀸' 김연아 이후 13년 만이다.

주니어 그랑프리 파이널은 한 시즌 7개 대회 성적을 따져 상위 6명에게 출전권을 주는 '왕중왕전' 격 대회다.

한 선수에게 2개 대회 출전권이 주어지는데 우승자에게 15점, 준우승자에게 13점, 3위 선수에게 11점 등 등수별로 점수를 차등 지급해 순위를 가린

다. 김예림은 올 시즌 2개 대회에서 모두 준우승해 총점 26점을 획득하며, 6차 대회까지 공동 4위를 달리고 있다.

랭킹포인트 20점을 확보한 유영(과천중), 이해인(한강중), 리온 스미요시(일본) 등이 마지막 대회인 7차 대회에 출전하지 않으면서 김예림은 이번 시즌 랭킹 포인트 최소 6위를 확보했다.

그는 3차 대회에서 총점 191.89점을 기록했고, 5차 대회에서는 한국 여자 싱글 주니어 역대 최고 점인 196.34점을 받았다.

그랑프리 파이널은 12월 6일부터 9일까지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류현진·커쇼, 다저스 새 역사 합작

구단 최초 포스트시즌 첫 2경기 완봉승...NLCS 진출 확률 89%

류현진과 클레이턴 커쇼가 눈부신 호투 릴레이로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포스트시즌(PS) 새 역사를 함께 썼다.

커쇼는 지난 6일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 메이저리그 내셔널리그 대비전 시리즈(NLDS-5전 3승제) 2차전에서 애크랜드 브레이브스를 8이닝 2피안타 3탈삼진 무실점으로 막고 3-0 승리를 이끌었다.

앞서 5일 1차전에서는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이 선발 등판, 7이닝 4피안타 8탈삼진 무실점으로 호투하면서 6-0 승리의 주역이 됐다.

류현진과 커쇼 모두 불넷 없는 무결점 투구로 다저스의 가을야구에 신바람을 불어 넣었다.

포스트시즌에서 첫 2경기를 팀 완봉으로 승리한 것은 다저스 구단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다저스는 또 1921년 뉴욕 양키스에 이어 메이저리그 역대 2번째로 포스트시즌 첫 2경기를 연속 무실점 승리로 장식한 팀이 됐다.

다저스는 류현진과 커쇼의 연속 완벽투로 NLCS 진출 확률을 89%로 높였다. 역대 이 시리즈에서 첫 2경기에서 승리한 팀이 다음 시리즈로 진출한 경우는 27번 중 24차례에 이른다.

한편 '벼랑 끝'에 몰린 애크랜드 브레이브스가 3차전 선발 투수를 바꿔 다저스와 맞선다.

7일 미국 언론에 따르면 브라이언 스넷커 애크랜드 감독은 NLDS 3차전 선발로 우완 케빈 가우스먼 대신 좌완 손 뉴컴을 내세운다.

스넷커 감독은 올해 다저스를 상대로 잘 던진 뉴컴을 뽑아 들어 '도 아니면 모'의 도박을 걸었다.

뉴컴은 지난 7월 30일 다저스와의 경기에서 아웃카운트 1개 모자란 노히트 투구를 선사했다.

뉴컴은 올해 정규리그에서 12승 9패, 평균자책점 3.90을 올렸다. 다저스를 상대로는 1승 1패, 평균자책점 3.86을 남겼다.

다만 뉴컴의 정규리그 막판 10경기 등판 성적은 2승 4패, 평균자책점 5.68로 좋지 않았고 홈에



류현진

서도 4승 6패, 평균자책점 5.12로 나뉘기에 스넷커 감독의 선택이 도박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저스의 3차전 선발은 예상대로 광속구 투수 워커 볼라다. /연합뉴스

피츠버그 화두는 '강정호'

구단, 내년 계약 연장여부 관심...현지언론 "새 조건으로 계약 전망"

미국프로야구 피츠버그 파이리츠의 스토브리그 화두 중 하나는 '강정호(31)와의 계약'이다.

MLB닷컴 등 많은 현지 언론이 "피츠버그가 바야아웃 금액을 제시한 뒤, 새로운 조건으로 강정호와 계약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강정호는 2015년 메이저리그로 진출하며 피츠버그와 4+1년 계약을 했다. 우여곡절 끝에 4년의 세월이 지나고 2019시즌에는 구단이 강정호와 1년 계약 연장 여부를 택한다.

피츠버그가 강정호와 1년 계약을 연장하면 연봉 550만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 강정호는 피츠버그 구단이 계약을 해지하면 25만 달러를 받는 다.

피츠버그는 제3의 길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 MLB닷컴은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피츠버그는 강정호와 구단 옵션으로 계약하지 않고, 바이아웃을 지불한 뒤 협상을 이어갈 가능성이 가장 크다"며 "아마도 피츠버그는 보장금액을

낮추고, 성적에 따른 보너스를 지급하는 방식을 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정호는 2015년과 2016년 메이저리그에서 229경기를 뛰며 타율 0.273, 출루율 0.355, 장타율 0.483, 36홈런, 120타점을 올렸다.

하지만 강정호는 2016년 말 한국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됐고, 과거 음주 운전 경력까지 드러났다. 미국 취업비자까지 받지 못하면서 2017 시즌을 통째로 쉬었다.

2018년 극적으로 취업비자를 받은 강정호는 빅리그 재입성을 준비하던 중 8월 4일 왼쪽 손목의 괴사성 연골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피츠버그는 강정호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았고, 시즌 막판 강정호를 빅리그로 불러올렸다. 강정호는 3경기에서 6타수 2안타를 쳤다.

피츠버그는 "강정호와 재계약 한다면, 그를 도미니카공화국 리그로 보내 2019시즌을 준비하게 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연합뉴스